

質問에 좌우되는 輿論調査

現代社會에서는 大衆의 見解를 묻기 위해 자주 輿論調査를 실시한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주어지는 質問과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結果는 매우 相反되게 나타난다. 미국 에너지개발협의회 (USCEA)의 Ann S. Bisconti 부이 사장은 本稿에서 輿論調査의 위험성과 나타난 結果에 대해서 精確한 판단을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위험부담

여론은 오도될 수 있으며, 여론은 질문을 던지는 방법에 따라서 전적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원자력학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자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원자력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토록 요청을 받았다.

대다수의 원자력 과학·기술자들은 원자력에 대해 당연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대중의 긍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앞으로 수년 후 원자력이 국내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자력 과학기술자들은 국민의 3퍼센트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발언자들은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반대를 한탄하였다. 예상대로 지방지인 Seattle Times지는 “공공의 회의주의가 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과학자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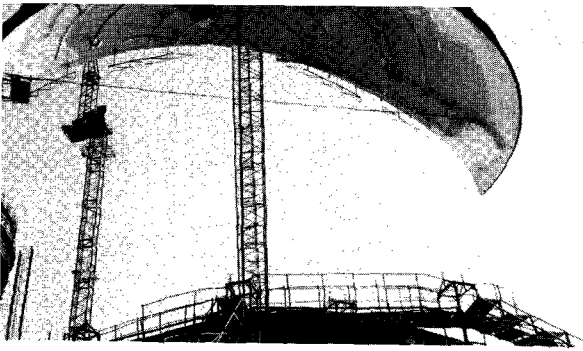
과 일반대중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보도하였다.

정책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원자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정책결정권자들은 대중이 실제로는 원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Ted Smith와 Michael Hogan의 1987년 輿論調査(Public Opinion Quarterly)를 보면 파나마 운하 조약에 대한 상원 비준의 경우가 이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론조사 자료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여론이 그 조약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왜 여론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것은 원자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이 계속되는지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여론조사에의 집착

미국의 일반대중과 정책결정권자 및 여론조사자들은 정책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이슈에 대해 그것의 복잡성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찬반 투표를 찾는다. 이슈



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련성이 오래전에 사라졌음에도 그 문제에 집착한다.

Survey Research Center의 이사이며 미시간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Howard Schuman은 단일 질문에 대한 “국민투표의 부당성”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 여론연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Opinion Research)에서 1986년도에 행한 연설에서 국민투표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중적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투표가 불가피하다면 투표는 주의를 기울여서 평온한 가운데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자력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 단일 질문이 여론의 척도로 널리 사용된다. 이 질문은 전문가가 요구하는 것을 확실히 측정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성향을 평가하는 데는 미흡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최소한 원자력 자체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발전소를 지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위기가 사라진 1980년대 초반에 에너지는 대중의 관심권에서 벗어났다. Cambridge Reports, In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82년까지의 3년 사이에 에너지를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두가지 문제 중의 하나라고 대답한 미국민의 수는 69%에서 5%로 떨어졌다. 원자력발전소를 더 건설하자는 지지도도 떨어졌고 에너지 공급을 증가시키자는 지지도도 떨어졌다.

앞으로 10년 동안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민은 적었다. 그러나 78%는

앞으로 미국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으며 40%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다.

○불일치의 거부

찬반 투표에 대한 기준으로써 단일 질문을 던져놓고 여론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의 예상된 답변에 부합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거부하거나 불신한 원자력의 경우를 들어보자. 대다수(81%)는 장래에 국내 전력수요를 감당하는데 원자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주요 전력원으로써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 보다도 더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단지 30%만이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있다(이 모든 결과는 Cambridge Reports의 1988년 5월 여론조사로 부터 나왔다).

이들 조사결과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을 늘이기 위해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치는 않지만 장래에는 중요하다고 보는 일반국민들이 많은 것이다.

○강제로 표출된 의견

여론조사의 강행은 가끔 여론조사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의견이 없는 사람들로 부터 의견을 강제로 얻어내게 한다. 응답자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빠른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받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와 같은 질문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또 다른 보편화된 접근방식은 응답자들에게 문제와 관심사를 설명하고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대중의 견해 보다는 여론조사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였다든가 또는 수록된 문제에 대해

〈表〉 질문에 따라 좌우되는 응답

질문	구분 (%)	구분 (%)		잘 모르겠음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음
		찬성	반대		
Harris/ABC 뉴스(1978년 5월) “당신은 미·소간의 새로운 SALT 무기협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74	12	13	-
Yankelovich (1978년 5월) “정부는 미·소 양국이 생산하게 될 전략핵무기의 수를 제한하는 SALT II 라 불리는 새로운 협정을 모스크바와 협상하려 하고 있다. 당신은 소련과 이러한 협정을 맺는 것을 찬성하는가 혹은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33	56	11	-
NBC 뉴스/Associated Press (1979년 3월) “현재 미국과 소련은 SALT II 라 불리는 새로운 전략무기제한협정의 조인에 가까이 와 있다. 당신은 의견을 가질 만큼 그것에 대해 충분히 듣거나 보았는가? (의견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SALT 협정에 찬성하는가 또는 반대하는가?)”		13	6	2	79

독자적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앞에서 언급된 파나마 운하 조약에 대한 여론의 변화는 그 조약의 여러 면을 응답자에게 알려준 여론조사자의 시도대로 나타났다. Smith와 Hogan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여론조사의 기본 임무는 대중의 견해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주어진 정보에 대해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방식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1978년과 1979년의 SALT 무기협정에 대해 미국인들이 찬성하였는가 또는 반대하였는가? 그것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지배를 받는다. Harris / ABC의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무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구절이 첨부된 Yankelovich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두 여론 조사후 NBC / AP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의 19%만이 그 문제에 어떠한 의견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1978년의 농업통상법”(Bishop et. al., Public Opinion Quarterly)과 가상의 “Public Affairs Act”(Schuman and Press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March, 1980)에 대해 질문을 받은 미국민의 약 3분의

1이 의견을 표현했다. 아마도 가상의 법률안에 “방사선”이나 “폐기물”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포함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다.

사실 사람들에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은 더욱 광범위한 관심을 끌어낸다. Roper 여론조사(1988년 1월)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여기에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록을 읽고 각각이 어느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요.” 81%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의 방사선이 “가장 또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원자력의 단점을 들라고 요구한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이라고 답한 사람은 4분의 1을 넘지 않았다. 즉, 지각있는 사람들은 방사성폐기물 이슈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미국민들의 의견의 최상층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동적인 요인

미국 대중들은 지식의 부족을 기꺼이 인정하여 잘 모른다고 느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확정하기를 꺼린다. 화제에 대한 관심도와 의견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네가지 질문을 수집한

Yankelovich Mushiness Index같은 척도는 이슈에 대한 의견의 강도 및 유동성을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척도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원자력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확고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지만 이 보편적인 인식이 꼭 옳지는 않다. 원자력문제에 Yankelovich Mushiness Index를 적용하면 약 5%만이 절대 찬성하고 5%가 절대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큰 질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는 자세한 질문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더 큰 질문에 대답하기가 더 쉽다. 여론조사자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현대의 이슈가 아니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보일 때에는 기본적인 욕구에 관해서 더 큰 질문을 묻지 않는다.

오늘날 여론조사자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는 두 개의 기본적인 욕구는 에너지 안정과 신뢰성있는 전기이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조용한 이슈이지만 미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극히 소수의 미국민들만이 에너지의존과 에너지 부족은 미국이 직면한 중요과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Cambridge Report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중의 94%가 에너지 독립을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전력 부족은 간단히 받아드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의견 표출을 자제하는 대중의 욕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성향을 분석한다면 이러한 성향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여론조사는 종종 원자력을 단지 정치적인 이슈로만 다루지만, 미국 대중은 아직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생각하고 있다.

○점검과 재점검

대중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검으로 보완되는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패널 연구, 연구결과와 적용, 서로 다른 여론조사 단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상호비교, 자유로이 생각나는대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채택 및 실제 행동의 측정은 여론조사 결과 및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궁극적인 여론조사는 투표소에서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운전 정지시키거나 또는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14번의 국민투표가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신뢰성

특정 단체가 지원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제시된 문제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 후원을 받지 못하는 여론조사 자료는 일반적으로 여러 주제의 조사에 우연히 포함된 한 두개의 질문으로 국한된다. 어떤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실시하는 연구는 후원을 받지 못하는 연구자도 물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주관을 가지고 있지만, 후원을 받지 못하는 연구보다 더 비판적이라고 여겨진다.

여론 연구의 유효성은 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과 질문에 있다. Gallup, Roper 그리고 Cambridge Reports와 같이 명성있는 단체에 의한 국가적인 여론조사는 그당시 모든 미국 성인의 의견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집단에 의존한다. 그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항상 질문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자신의 상식을 적용하여 질문의 타당성과 대답의 가치를 잘 판단해야 한다.